

미디어아트로 광주 명소도 즐기고, 일상의 '회복'도 기원하고...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미디어아트 6개 특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가 지난 2014년 12월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이들 미디어아트 공간은 세계 창의도시들과의 교류를 매개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최근 미디어 338에서는 유네스코 비전과 연계된 '미래적 회복'을 도모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한 5G 미디어실증체험관은 5G 실감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디어 338기획전과 5G 미디어실증체험관을 소개한다.



김안나 작 'Breath, 숨'

미디어아트로 일상 '회복' 기원

◇ 미디어 338 'Recovery: 미래적 회복'

기후와 환경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 문제다. 미디어 338에서 열리는 기획전 '미래적 회복'은 3개 시리즈로 진행된다. 7월 16일까지 김안나 작가의 'Beyond Human'이 펼쳐진다. 이후 이승연 작가 '재난의 시대, 몽상 판타지아' (7월29일~9월10일), 시민참여형 퍼포먼스 'Jump into the Sky' (7월29일~9월10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3개 시리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기조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될 뿐 아니라 기후, 환경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한마디로 '회복'으로 수렴되는 데, 전혀 없는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일상에 대한 회복을 희원하게 했다.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인간과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적 회복'을 뜻한다.

김안나 작가의 'Beyond Human'은 인간과 기술, 자연의 관계를 매개로 인류세 문제를 탐구한다. 현재 광주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김안나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재미교포 작가다. 이번 전시에

미디어338, '미래적 회복' 기획전... 김안나·이승연 작가 초청

5G미디어실증체험관, '반짝반짝 유미씨' 등 9개 콘텐츠 인기

서 김 작가는 9·11테러와 이후 지속되는 전쟁들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폭력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다룬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상주의, 희망, 치유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이승연 작가는 '재난의 시대, 몽상 판타지아' 전을 토대로 고대사와 신화, 상상의 극한을 보여줄 예정이다. 철, 나무, 영상 등을 활용해 미래를 현실로 끌어 들인다.

마지막 이승연 작가의 시민 참여형 퍼포먼스 'Jump into the Sky'는 무등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광주시민들 이야기와 메시지를 하늘로 띄우는 퍼포먼스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꿈을 표현했다.

◇ 5G 미디어실증체험관 '스페이스 5G네'

지난해 빛고을시민문화관에 문을 연 5G 미디어실증체험관은 지역의 예술, 과학,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디어아트와 융복합 콘텐츠 창작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미디어아트 창의랩, 미디어338, 국제 교류 등 관련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해 신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의미도 담고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마련된 실증체험관은 '반짝반짝유미씨', '네모네모체험관', '움직이는 공연장', '앉아보는 미술관', '내가 그린 거북이', '사진찍자 나하고' 등 모두 9종의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사이니지Wall을 활용한 '반짝반짝유미씨'에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멀티터치 다중 디스플레이로 광주를 포함한 국내 창의도시 소개는 물론 미디어아트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관람이 가능하다는 것도 감점이다.

360도 5면 LED 큐브체험관에 세계 최초 라이브 영상을 적용한 '네모네모체험관'은 드론으로 촬영한 광주전남의 명소를 감상할 수 있다. 빛의 도시 광주투어를 비롯해 무등산과 아름다운 절경, 바닷속 세상 아쿠아리움, 바닷가 여행, 서바이벌 가상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린 거북이'는 관람객이 직접 태블릿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광주 공원 캐릭터 '구동이', 광주캐릭터 '오매나'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리기 체험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360도 5면 LED 큐브체험관인 '네모네모체험관'에서는 광주전남의 명소를 볼 수 있다.

내장산 290년 단풍나무 천연기념물 된다

문화재청 "급경지서도 웅장한 수형 이뤄 학술적 가치 높아"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사진)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단풍나무 숲이 아닌 단풍나무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뿐 아니라 단풍나무 단목으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문화재청은 2일 내장산 금선계곡에 있는 수령 약 290년인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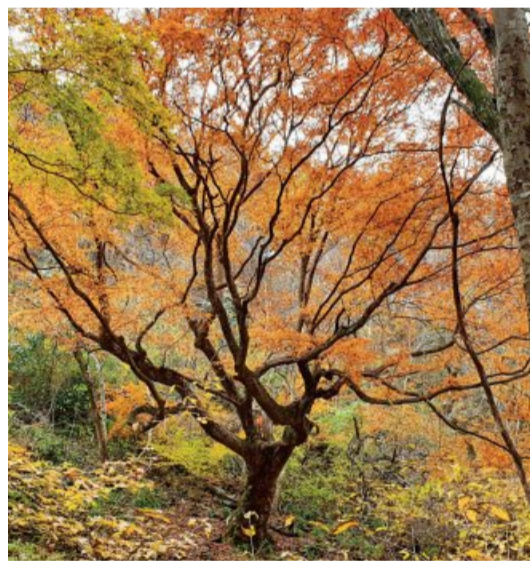
이 단풍나무는 높이가 16.9m에 수관폭이 동서 방향 20.3m, 남북 방향 18.1m이다. 밀동 둘레는 1.13

m, 가슴높이 둘레는 0.94m이다.

내장산 단풍나무에는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헤맨 아들에게 감동한 산신령이 많은 나무를 붉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한편 문화재청은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는 단풍 명소로 유명한 정읍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급경지라는 환경에서도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 외형적으로 웅장한 수형을 이루는 등 학술 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월 아픔 극복... '언젠가 봄날에'

놀이패 신명, '방방곡곡 문화공감'... 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사진)는 5월의 아픔과 극복을 창작탈극, 소리 등으로 승화한 작품으로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오월정신을 알렸다.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가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우수공연초청기획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첫 번째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오는 5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3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선정돼 50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가족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5월의 슬픔을 해원상생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뒀으며, 이번에는 전통연희 공간인 마당에서 공연장으로 무대를 옮겨 재현된다.

1982년 창단된 놀이패 신명은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으며,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일본 순화공연을 펼쳤다.

한편 이후 일정은 9월 11일 나라발레시어



터(창작무용) '애기섬', 10월 22일 (재)서울예술단(창작가무극) '굿 세위라 굿순아', 11월 12일 (주)북프로덕션 (클래식음악) '비발디 & 피아졸라 & 팔레스트리나'가 예정돼 있다.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265석만 관람 가능. 전화예약 접수, 입장료 5000원. 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27회 광주미술상에 윤종호 작가 선정

운영위, 창작지원금 등 수여

제27회 광주미술상 수상자로 윤종호(40, 조각·정원예술·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이사장 조규일)는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미로센터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윤 작가를 최종 수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미술상은 광주·전남의 원로와 중견 미술인들이 역량 있는 후배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윤 작가에게는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졌으며,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문화공원 김빛과에서 개인전 '자연에 나를 담다'를 개최하게 된다. 인공물과 자연,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의 융합, 조각이 지닌 미적가치와 영원성, 식물의 생명성과 변화무쌍함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불안정한 현대사회와 시대문화 속에서 불안함을 극복하고 삶을 성장시켜가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윤 작가는 보성출생으로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입체조형과 자연과 예술의 융합을 모색하는 '장미빛 인생', '페르소나를 입다'

전 등 개인전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이상동몽' (2020, 정주 숲속갤러리), 'SHOW CON' (2019, 오산시립미술관 야외), '천국의 정원' (2019, 프랑스 쇼몽), '늑대아이' (2019, 광주 무등갤러리) 등에 참여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한편 앞서 진행된 공모에는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만 2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작가 18명이 응모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명품 조연배우 이한위의 인생이야기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렉처콘서트' 1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명품 조연배우 이한위(사진)의 38년 배우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배우 이한위를 초청해 '빛고을 렉처콘서트'를 개최한다.

'배우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 이한위는 유년 및 대학 연극반 시절을 비롯해 제10기 KBS공채 탤런트 시험 합격 등 연에게 입문 이야기를 한다. 또한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낸 시절, 배우로서의 가치관과 문화예술과의 연계성 등을 풀어낼 예정이다.

광주 출신 이한위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웠으며 조선대 공학도 시절 연극반 활



등을 했다. 이후 1983년 KBS 공채 10기 탤런트에 합격해 연에게 입문했다. 2008년 SBS 연기대상 연속극부문 남자조연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드라마 '언더커버'에 출연 중이다.

한편 7월 8일 '빛고을 렉처콘서트'에서는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가 '아이 러브 돈키호테'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전화신청으로 선착순 50명, 무료관람. 방역지침에 따라 강의가 진행된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